

SK, 석유정제능력 아시아 4위 기대

인천정유 인수하면 111만5000배럴로 증가 ... 중국시장 진출도 적극적

SK가 27만5000배럴의 인천정유를 인수하면 석유정제능력이 하루 111만5000배럴로 늘어나 아시아 4위로 부상할 전망이다.

중국 Sinopec(329만배럴), PetroChina(265만배럴)에는 크게 미치지 못하지만 일본 新日本石油(117만배럴)에 이어 아시아 4위로 올라서게 된다.

국내시장 점유율은 40%대로 압도적인 1위를 굳히게 된다.

SK는 인천정유를 중국시장을 겨냥한 생산기지로 사용할 방침이다. 중국 등에서 원유를 도입해 정제한 후 중국시장에 팔겠다는 전략으로 중국 Sinochem이 인천정유 인수에 뛰어든 배경이다.

SK는 Sinochem과 전략적 제휴를 구축하고 인천정유 생산제품을 Sinochem에 판매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장기적으로 중국에 정유공장을 건설하려는 SK가 현재로서 벽에 부딪힌 중국 생산기지 확보의 돌파구로 인천정유를 선택했다는 분석이다.

SK는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메이저 석유회사로 성장하기 위해 인천정유 인수를 추진했으며, 인수가 확정되면 추가 시설투자를 통해 생산된 정유를 모두 수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SK는 중국 주유소 시장에도 진출해 소매시장에도 적극 뛰어든 방침인데, 이미 Sinochem과 합작으로 베이징, 상하이로 중심으로 수천개의 주유소를 확보하는 구상이 구체화되고 있다.

계열사인 SK네트웍스도 2004년 중국 선양에 복합주유소 12곳을 건설기로 하는 등 2006년까지 중국 현지 주유소를 30개로 늘릴 계획이다.

<화학저널 2005/08/25>